

# 송암교회 말씀묵상

3월의 찬양

##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홍정식

A E/G# F#m D Bm7 E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A E/G# F#m D B7 C#sus4 C#7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F#m C#m D A/C#  
 우리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Bm A/C# Dmaj7 B7/D# E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실 주-님께  
 D/A A E/G# F#m D B7/D# Esus4 E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D/A A E/G# F#m D E A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2022년 3월 7일(월)

죄의 고백

찬송 539장

시편 51:5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떤 이는 죄의 정의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주인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만을 고집한다면 분명 예수님의 제자는 아닐 것입니다. 시편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범하고 더 나아가 우리야를 죽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니다. 죄가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질문: 나는 죄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기도: 주님, 죄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서 찾게 하소서! 아멘.

2022년 3월 8일(화)

씻어주소서

찬송 9장

시편 51:6-7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표준새번역)

모든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근원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이를 깨닫고 눈물로 죄를 고백하는 우리는 고통과 아픔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기쁨입니다. 다윗은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중심로부터 나오는 눈물의 참회를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로 애통한 적이 있었나요? 어떻게 회복하였나요?

기도: 주님! 말씀을 내 죄를 씻어 하나님의 온전한 사함에 이르게 하옵소서. 아멘.

2022년 3월 9일(수)

솔직과 정직

찬송 449장

시편 51:10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정직을 솔직한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이것은 정직이 아니라 솔직입니다. ‘솔직’이 자신의 감정을 담은 말이라면, ‘정직’은 오랜 자기 성찰 끝에 우러나오는 깊은 심성입니다. 진정한 참회는 정직에서 나옵니다. 코람데오!(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고백은 긴 호흡의 성찰 끝에 ‘우러나온’ 정직입니다. 이런 깊은 심성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나는 이기고 싶은 솔직함을 넘어서 정직한 패배를 받아들일 믿음의 용기가 있는가?

기도: 주님,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정직한 영으로 정직한 고백을 하여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2022년 3월 10일(목)

무익한 말, 살리는 말

찬송 263장

마태복음 12:36-3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36절)

성경에는 말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말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뱉는 말이 심판의 날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말의 무게는 보통 사람들의 말의 무게와 달라야합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대해 진지한 믿음을 지닌다면, 무익한 말이 줄어들게 됩니다. 심판날에 대한 믿음만큼, 우리의 말은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무익한 말은 삼키고, 살리는 말을 선언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가 뱉는 말이 심판날에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기도: 주님! 무익한 말을 내려놓고, 생명을 살리는 말로 내 삶을 채워나가게 하소서. 아멘.

2022년 3월 11일(금)

넘어질 뻔한 믿음

찬송 374장

시편 73:1-3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시73:2).

시인은 현실세계에서 악인이 누리는 평안을 열거하며 억울함과 허탈감에 빠질 뻔했습니다. 시인이 보기에 악인의 걸모습은 당당하기만 합니다. 그런 악인들로 인해 일상에서도 많은 이들이 시험에 쉽게 빠지곤 하지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온 믿음에 비해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분입니다.

질문: 난관에 봉착할 때일수록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되셨습니까?

기도 : 주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 속에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2022년 3월 12일(토)

성소에 들어가서야

찬송 516장

잠언 73:15-17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17절)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는 사람은 고통받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니?”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어려운 문제는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풀립니다. 하나님의 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곳에 가서야 시인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시인은 악한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영광을 만나시고, 십자가 없는 영광의 종말이 무엇인지 숙고하며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질문: 시인은 어디에 가서야 깨달음을 얻습니까?

기도: 주님, 날마다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2022년 3월 13일(주일)

옥의 회개

찬송 549장

옥기 42:5-6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6절)

옥은 당대의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자녀들도 잘 양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건강도 가족도 모조리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옥의 죄 때문이라고 비판했지만 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습니다. 당시에는 고난의 원인이 죄악에 있다는 인과응보사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즉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옥의 친구들처럼 쉽게 남의 고난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질문: 고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도: 주님! 고난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아멘.